

세대를 잇는 교회 리더십 설계 《디모데 프로젝트》

글_강민영 국제제자훈련원 편집부

경제경영서 분야를 넘어 출판계 전체에 리더십 책이 넘쳐난다. 기독교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리더십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출판사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또 리더십이라니...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편집장님에게 받아든 책이 바로 《디모데 프로젝트》이다. 그런데 '리더십 바통' (Leadership Barton)이라는 원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기존의 리더십 서적과는 좀 다르다.

세세히 따지고 들면 제각각의 쓰임새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책이 어디 있겠나만, 기존의 리더십 서적이 개인과 그룹, 현재의 리더십을 고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책은 지금까지 쌓아온 리더십을 다음 세대와 다음 계승자에게 전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고 키워내는 데 집중한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며 세계 기독교계의 주목을 받다가 정체기에 머물고 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꼭 필요한 책이 될 것 같았다. 부흥과 성장을 주도했던 1세대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잘 계승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정체중인 건 아닌가.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굴곡진 리더십을 보여주는 교회 사역을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리더십 계승을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인 것 같았다. 이 책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책이다.

책을 작업하는 동안 적지 않은 주변인들이 "디모데 프로젝트"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했다. 어떤 책인지 제목만으로는 쉽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반응은 제목에 대한 확신을 흐렸다. 하지만 대번에 리더십이나 소명의 계승을 이야기하는 책임을 아는 사람도 있었다. 이 책의 주 독자층이 될 목회자나 교역자, 소그룹 리더, 교회 직분자들은 바울의 리더십을 이어받은 청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고, 디모데가 세대 계승의 대명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자신이 맡고 있는 사역을 잘 수행해 내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를 염두에 두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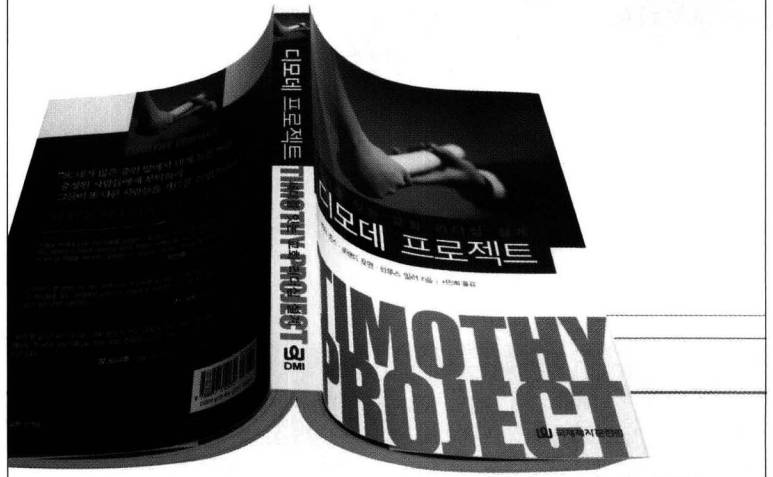
책의 목차와 디자인은 프로젝트라는 이름표에 맞게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목차는 비전을 보여 주고 훈련 대상과 요소, 수행 과정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종 도표와 수행 항목들은 더 보기 좋고 근사하게 멋을 냈다. 책의 주제를 전하는 데 바통 터치가 적합할 것 같아 회사 직원을 섭외해서 옥상으로 올라가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출연료로 아이스티 한 잔과 책을 받았다.)

그런데 저자가 세 명이라는 것이 걸렸다. 각각의 목소리가 하나로 조화되지 못하고 산만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더구나 진 게츠 목사의 '디모데' 라고 할 수 있는 제프 존스를 제외한 두 명의 저자는 한국에서는 지명도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러나 처음 우려와는 달리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동역했던 그들은 누구 하나 '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했다.

수많은 리더십 서적의 마지막 단원, 몇 장에 불과한 적은 분량을 차지했던 리더십 계승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디모데 프로젝트》가 교회의 건강한 세대 계승과 지도자 발굴과 양육에 대한 가치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데 일조한다면 이 책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

《디모데 프로젝트》

제프 존스, 로랜드 포맨, 브루스 밀러 지음 | 서진희 옮김 | 국제제자훈련원 | 300쪽 | 값 11,000원



건강한 남성의 출발은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것부터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

글_최성훈 젠북 대표

인연과 우연은 어쩌면 필연인지도 모르겠다. 출판사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초가를 쯤, 앞으로 출간할 도서들을 챙기느라 분주한 가운데 편집기획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놓았다. 바로 스티브 비덜프의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원제: Manhood)이었다. 출간할 단행본 분야의 성격을 놓고 고심하던 끝에 '남자(남성)'라는 주제를 테마로 다루기로 마음을 먹고는 기획을 진행 중이었기에 마치 인연인 것 같아 더욱 마음이 끌렸고, 일전에 자료조사 끝에 우연히 추천받은 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낯설지가 않았다.

기획팀과 미팅 후 '그래, 이것부터 시작하자!'고 결정하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Being the Strong Man a Woman Wants》(Elliott Katz 지음)라는 작품도 계약한 직후라 마치 두 작품이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무척 고무됐다.

작품 계약 후 직접적인 도움을 주신 인터오스트레일리아의 임인섭 대표를 만나 저자인 비덜프 씨에 관한 최근 정황을 듣고 그와 관계되는 사항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번역자 박미낭 선생님도 물론 함께였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다른 이에게 맡기기보다는 직접 편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혀 갔다. 무엇보다 작품내용이 탐이 났기 때문이다. '아하, 남자의 이야기라(?)', 자유로운 남성성의 회복, 아버지와 아들(자식) 간의 화해, 부부관계의 신뢰회복, 좋아하는 일 하기 등.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의 나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이 작품의 전도사인 양 만나는 사람들에게 장황한 작품 설명을 늘어놓기도 했다.

박미낭 선생님의 번역원고가 도착한 후 편집을 진행하면서 비덜프 씨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작품 전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덜프 씨는 자상하면서도 상당히 꼼꼼하고 정확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문의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답변해주셨고 부탁드린 추가원고도 곧장 써주셨다. 편집 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작업 내내 나의 이야기인 양 작품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 후 마지막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했던 책의 제목과 표지작업까지 마무리하게 되는데, 책의 마무리 작업은 박미낭 선생님과 비덜프 씨의 적극적인 도움이 큰 힘이 됐다.

이 책에서 비덜프 씨는 "자유롭고 건강한 남성성의 창조를 위해 이제 남성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 출발점을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곁에 존재하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덧 지나온 삶의 자취가 살아갈 시간보다 더 길게 여겨진다면, 그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해결방법들은 시사하는 바가 더더욱 클 것이다.

우연히 만나서 좋은 인연이 된 이 책으로 말미암아, 그럭저럭 살아가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 것이 나에게 필연적인 운명으로 여겨지듯, 이 책을 읽은 혹은 읽게 될 독자들에게도 남성과 남성의 참된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겠다. **★**

《남자, 그 잃어버린 진실》

스티브 비덜프 지음 | 박미낭 옮김 | 젠북 | 359쪽 | 값 13,000원



스무 살의 열정 그리는 40대 여성들의 솔직한 이야기 《두 번째 스무 살》

글_권혁란 도서출판 이프 편집장

맨 처음엔 이 책이 이렇게 징글징글한(?) 여자의 40년 생애의 지난한 이야기들로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애초의 기획은 30대를 넘어 40대가 가까워오는 여자들의 가장 간절한 꿈을 알아본 후 그걸 답지는 거였다. 예상과 달리 마흔 즈음 여자들의 절박한 꿈은 자식을 일류 대학에 보내는 것도, 남편의 성공도 아니었다. 진실로 원하는 것은 '내 일을 갖고 싶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필자 섭외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꽤 성공한 여자들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소소하게 재취업해서 몇 푼 버는 여자들의 이야기는 생각만큼 재미있지 않았다. 기획회의를 다시 열어 '여자나이 마흔'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할 때 고정희 시인의 <사십대>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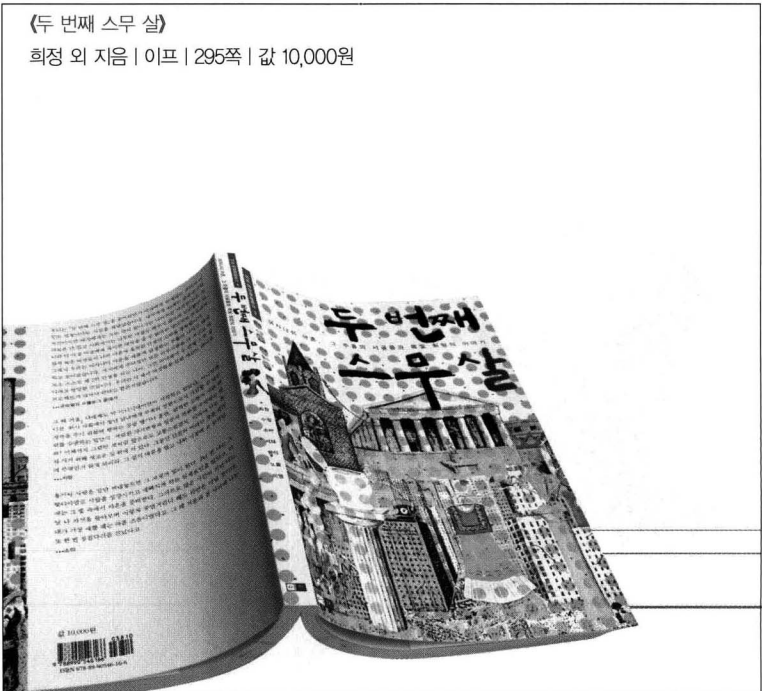
“찌 뿌리는 이십대도/ 거두는 삼십대도 아주 빠르게 흘러/ 거두는 사십대 이량에 들어서면/ 가야 할 길이 멀지 않다는 것도 안다/ 선택할 끈이 길지 않다는 것도 안다/ 방황하던 시절이나/ 지루하던 고비도 눈물겹게 그러안고/ 인생의 지도를 마감해야 한다.”

자리에 앉은 여자들 모두 시 이야기를 하면서 자지러졌다. 바라볼 시간도, 기다릴 인연도 많지 않다는 것을 아는 나이라니. 사십대 문턱에 들어서면 심지어 와 있는 인연들을 조심스레 접어두고 보속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니! 왜 아니겠는가. 이야기는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차라리 우리 그 이야기를 해보자, 아니 들어보자. 우리들의 스무 살은 도대체 어땠었는가. 말 그대로 지지고 볶으며 살다보니 어느 덧 서른 중반을 넘어 사십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인생의 지도를 마감' 해야 한다니?

《두 번째 스무 살》이란 말도 그때 나왔다. 나이 마흔이야말로 여자가 다시 맞이할 두 번째 스무 살 아니냐는 것! 이미 섭외한 필자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글을 써줄 것을 주문했다.

상처와 희망의 이야기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느 날은 눈물로, 어느 날은 참회로, 어느 날은 희망으로 가득 찬 글을 써 보내왔다. 새로 필자를 선정해 글을 의뢰하면 청탁 수락에서부터 자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누가 물어봐주었겠는가. 휘이휘이 살아오느라 급급한 그녀들에게 누가 진지하게 새 날을 맞이하는 소회가 어떠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봐주었겠는가.

신기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책의 디자인을 맡은 이도 사십대 즈음이었는데, 그녀도 원고를 읽느라 원활히 일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말해왔다. 또래 여자들의 글을 읽으며 하도 공감해서 우느라 새벽을 넘긴 날도 부지기수였다는 것. 진짜로 스무 살 즈음인 젊은 여자들(회사 직원이나 손님들과 기자들)은 막 사십대를 넘기거나 오십을 바라보는 엄마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렸다고도 했다. 그리하여 부제가 나왔다. '여자나이 마흔, 그 주홍의 서글픔과 쪽빛 희망의 이야기'. 여자로 태어나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낙인찍힌 그 주홍글씨의 아픔을 넣었다. 그리고 파란 희망, 푸른 희망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잔인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색깔, 쪽빛이 그렇게 나왔다. **IF**



독자와의 소통 위해 한 박자 천천히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

글_김보미 말글빛냄 편집부 과장

출판계에서 '말글빛냄'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려운 책만 고집하는 출판사', '다수의 독자에게 외면 받는 출판사.' 최근의 추세로 본다면 말글빛냄에서 만드는 책들 중 심중팔구는 베스트셀러감이 아니다. 단지 스테디셀러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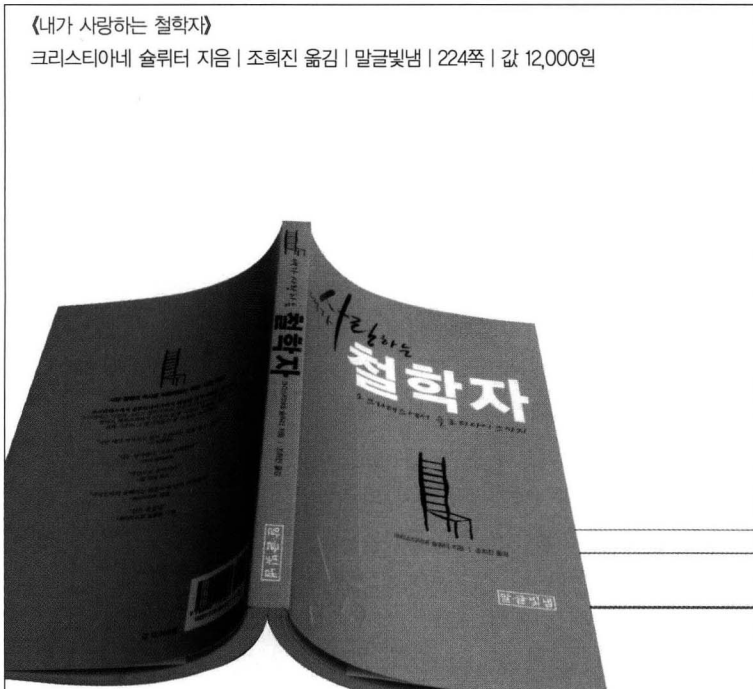
얼마 전 펴낸 《성과 이성 - 섹슈얼리티의 역사와 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출판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절판 상태였던 《성과 이성》을 다시 한번 세상에 내놓을 생각을 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중 무엇보다 이런 대작을 완역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두었고,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섹슈얼리티 이론의 근간이 되는 책이 한 권쯤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출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획 단계부터 많이 팔릴 것이라는 기대는 접어두고 시작한 일이라 오히려 풀어나가기가 쉬웠다. 우리가 만드는 책들을 꼭 필요한 독자들이 읽어준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은 없을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는 앞에서 언급한 말글빛냄에 대한 고정관념에 조그만 변화를 주겠다는 의도와, 독자들보다 좀더 가깝게 소통해보자는 취지가 맞물려 탄생한 책이다. 독자층도 고급 인문도서를 주로 읽는 30, 40대에서 중·고교생으로 넓게 확대했다. 가벼운 실용서들이 불타나게 팔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과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들 즈음, 인문·사회서적 전문출판사라는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을 기획한 것이다.

너무 쉬운 책들에만 노출되어 있는 요즘 독자들은 철학책이라고 하면 일단 고개부터 내젓고 본다. 우선 학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 다가가기 꺼려진다는 데는 이견을 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런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출간하게 된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는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가능케 하는 책이다. 뭐든지 첫걸음이 중요한 법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20인의 철학자들을 총망라한 이 책은, 어디선가 들어봤음직한 명언에서부터 그들의 사상까지, 마지막 장을 넘길 때쯤이면 철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에 있어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결국 원제를 좇아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라는 제목이 최종 결정되긴 했지만, 대중들이 좀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제목을 끌어내려 노력했다. 무엇보다, 여러 철학자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과 철학 입문서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상쇄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반응이 대다수여서 제목에 대한 후회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는 《내가 사랑하는 심리학자》와 함께 출간한 '내가 사랑하는...' 시리즈의 선발주자다. 또한 시리즈의 지속적인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 출판사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얻어 인문·사회서적이 좀더 많은 독자와 함께 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따라서 이 책이 항상 좋은 책을 출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출판사들의 책과 더불어 그 밑일이 되었으면 한다. ■



《내가 사랑하는 철학자》
크리스티아네 솔뤼터 지음 | 조희진 옮김 | 말글빛냄 | 224쪽 | 값 12,000원